

# 北 “돈 받아야 참가” 6자회담 파행

## BDA 송금 지연에 北 버티기...‘회기연장’ 가능성도

제6차 6자회담 사흘째인 21일 관련국들은 초기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와 이후 조치인 불능화 등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방콕메타아시아(BDA) 자금 입금 확인 후에 협상에 임할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회의운영을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외장국 중국은 가급적 이날 오후 5시30분(현지 시간) 6개국 수석대표회담을 열어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실무그룹회담과 19일부터 진행된 6자회담 논의결과를 정리해 의장 요약이나 의장성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기를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회담을 중단한 뒤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회담 소식통은 “의장국 중국이 수석대표 회담이후

각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말해 회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내내 숙소인 주중 북한 대사관에 머물다 오후 3시 30분께 대사관을 나와 회담장인 다오위타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의장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미·중·북·중 양자회담이 진행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BDA 동결 자금이 수중에 들어와야 토의에 임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늘 회담에서는) 양자협의 수준 이상의 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DA의 북한 자금 송금은 현재 금융절차상의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달리화 송금시 확인해야 하는 수신회 문제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된 실무그룹회의와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이행조치와 6개국 외무장관 회담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다양한 접촉을 통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자 외무장관급 회담을 5월초에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개선 조치를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 완수 이후 수개월내에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징=연합뉴스



3명의 대만 중공권위안부 출신 노인들이 21일 타이베이에서 가슴에 “할머니는 분노한다. 이베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항의”라고 쓴 형광을 매단채 대일(對日) 항의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한국, 美 주요상품에 철의 장막”

### 미 의회, FTA 청문회서 비판 한국정부, 역효과 우려 불참

한미 양국이 이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위원장 샌더 레빈)는 20일 오후 미 행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했다.

작년 6월 한미 FTA협상이 시작된 뒤 미 의회가 한미 FTA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양국 정부간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의회가 미 행정부에 미국의 입장을 관철토록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는 ‘그들만의 청문회’로 진행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 캐린

바티어 부대표를 비롯해 미국의 자동차·농업·제약업 등 업계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서 미 행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한국측에선 아무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당초 한국 정부도 증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방적으로 미국 업계의 목소리가 대변될 청문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경우 미 의회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뿐만 아니라 FTA협상에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해 증언에 나서지 않았다.

샌더 레빈 위원장은 “8차에 걸쳐 협상에서 대부분 협상의 장애물은 미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비관세무역장벽이었다”면서 “(협상)시작부터 한국은 미국제품들에 대해 관세와 세금, 각종 규제를 합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中 공안, 한국인 포함 전화사기단 30명 체포

중국 남부의 사면(廈門)시 공안 당국이 한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단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주 광저우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사면시 공안국이 지난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 범죄 조직원 30여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한국인 여성 1명과 대만인이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기 조직은 한국인들에게 세

금을 더 댔으니 환급을 받아가라는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다.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줄 알고 사기조직이 시키는대로 현금인출기를 작동하다 보면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이 오히려 인출되는 식이다.

최근 한국인 상대 전화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양국 경찰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 그랜드캐년 새 명물 ‘스카이워크’ 개장

미국 애리조나주(州) 그랜드캐년 협곡을 지상 4천피트(약 1천200m)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가 20일 개장했다. 개장식 직후 기자들이 U자형 전망대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 일반 관광객은 오는 28일부터 입장료 25달러를 내고 입장할 수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야스쿠니, 세계에서 가장 논란 많은 장소

### 포린폴리시, 템플마운트·포탈라궁 등 5곳 지목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가 미국 의 외교안보분야 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얽힌 장소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다.

포린폴리시 인터넛판은 20일 정치와 종교가 만나면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 조합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와 미국의 강경보수기독교의 상징인 볼 존슨 대학,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3대 종교성지인 예루살렘의 템플마운트(하람 알 샤리프), 티베트 불교 성지인 포탈라궁, 인도의 힌두교 성지인 아요다

를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적 분쟁이 끊이지 않은 5대 장소로 지목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50만여명의 전사자들이 합사돼 있는 곳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매년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문제가 외교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어 1억 5천만년 전

### 하늘 날던 도마뱀 화석 발견

나무 위에서 살며 나무 사이를 활공했던 1억5천만년 전 도마뱀의 화석이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견됐다. 고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보도했다.

선양사범대학 연구진이 미국립과학원회보 최신호에 소개한 이 도마뱀은 최근 깃털 달린 공룡들과 초기 새들의 화석이 무더기로 발굴된 랴오닝성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몸길이 약 15cm로 미성숙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 어린 나이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상룡 자오이’로 명명된 이 도마뱀은 익막이라고 불리는 막이 8개의 긴 갈비뼈 전반에 걸쳐 붙어 있으며 익막을 완전히 펼치면 약11cm가 된다.

상룡은 구부러진 발톱을 갖고 있어 나무로부터 활공할 수 있었고 공중에 뜬 뒤에는 오늘날의 날도마뱀보다 멀리, 어쩌면 한번에 50m까지 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합뉴스

## 신종 박테리아 5개 중 1개꼴

### 한국 과학자가 발견...세계 1위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표된 새 박테리아 가운데 5개 중 1개는 한국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영국의 세계적 미생물학술지 IJSEM에 등록된 박테리아 신종 547건중에서 한국과학자들의 발표건수가 107종(총 99편)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해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신규 박테리아 100종 이상을 발표한 최초의 국가라는 신기록도 수립, 미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기술강국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견한 미생물은 ‘동해’, ‘갯벌’ 등 우리 고유명사로 명명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독도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독도’로 이름지어져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약정

#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 태양광발전시스템

- 태양광 모듈 설치면적 107%
- 100kw 이하 1000만원 지원
- 100kw 초과 100만원
- 147명 232명

###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 태양광 모듈 설치면적 50%
- 100kw 이하 1000만원 지원
- 100kw 초과 100만원
- 147명 232명

### 태양광·태양열시스템 무상 보급보조사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상	2007.03.31 기준	신규주택
대상	주택용 태양광·태양열시스템	주택용 태양광, 주택용 태양열
대상	100kw 이하	1000만원
대상	100kw 초과	100만원

### 원수 및 양행번호

신청처	주식회사 한국에텍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00-1
문의처	041-262-0750 (사무) 041-262-0751 (영업)
홈페이지	www.kte.co.kr

● 세경가: 안동시청 앞 세경가역사관 ● 관공리: 대구시청 앞 관공리역사관